

地·水·火·風 환경호르몬 잔류

환경부 조사 물고기·개구리서 '암수 뒤바뀜' 발견

지난 5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호르몬의 생태 영향과 환경 잔류 실태 조사 결과 환경호르몬이 전국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올 8월 까지 17개월간 생태계와 환경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를 처음 조사한 결과 수질과 대기, 토양 등 113개 지점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13개 물질군 28개 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오염실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경우 수질에서는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대기와 토양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는 일본의 평균 검출치(1.8pg)보다 2.5배나

높은 4.48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이었다.

이밖에 캔의 내부 코팅제로 쓰이는 비스페놀A, 플라스틱 가소제인 PCB(폴리염화비페닐), 핵사클로로벤젠 등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광범위하게 나왔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벤조피렌도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검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구리와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생태계 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핵사클로로벤젠 등이 검출됐으며, 일부 물고기와 개구리에서 암수 뒤바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군 주남수지에서도

잡은 수컷 치리의 정소에서 난소에 있는 전난소막이 발견되고, 경남 하동군 삼진강에서 채취한 암컷 개구리의 난소가 정소로 변한 중인 조직이 관찰되는 등 5마리의 물고기와 개구리에서 성관련 이상현상이 관측됐다.

△문제로 대책= 물·공기·토양이 환경호르몬에 오염되고 그에 따라 식품이 오염되면서 실제로 국내에서도 산모의 모유나 태반에서 폴리염화비페닐이 관찰되는 등 환경호르몬은 이미 우리 생태계와 인간에 깊숙이 침투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어떤 물질이 환경호르몬에 속하는지조차 분류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허용 기준치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 물질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보다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고 모든 산업의 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호르몬이란= 농약·중금속·플라스틱 가소제·합성세제 가운데 생물체의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은 정자수 감소·기형아 출산 등 생식계통의 이상뿐 아니라 면역계·신경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la.com)

자연과 조화 깨질때 인간 생존 위협

불교의 눈

〈오양경〉을 보면 사람의 몸은 네 가지 원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네 가지 원소란 지(地)·수(水)·화(火)·풍(風)을 이르는 바, 이 중의 어느 한 원소가 조화를 잃으면 백한 가지의 병이 생기고, 네

가지 원소가 함께 조화를 잃을 때에는 사백네 가지의 병이 동시에 생겨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은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뜻하며, 자연의 조화가 깨질 때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니라 불교의 친환경사상이 자리잡아야 할 때다.

목숨 내건 살빼기

영터리 침술에 어지럼증 등 호소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구 복용

목숨을 건 '살빼기'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살 빼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터리 침술에 성행하는가 하면 중국산 향정신성 의약품이 살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영터리 침술로 급소를 찔러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 복용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 강남의 불법 침술소에서는 무면허 침술사로부터 침을 맞고 어지럼증,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시술 후 살빼는 약이라고 건네주는 한약재 알약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분석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잡아함정〉의 '전식경'을 보면 부처님 재세시에도 비만에 대한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코살리의 파세나디양은 부처님을 찾아 "비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 마다 적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이야기는 살을 뺀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된다. 중도의 생활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다이어트법이다.

음주운전 단속 시민참여

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4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지휘관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경찰개혁 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과거 음주단속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 인기탤런트 등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특정인을 봐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데다, 경찰과 유혹업소간 유착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4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지휘관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경찰개혁 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과거 음주단속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 인기탤런트 등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특정인을 봐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데다, 경찰과 유혹업소간 유착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복제 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 유전공학기술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윤리와 과학의 갈등.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에 회자되어 온 아주 진부한 주제이다. 과학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일층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윤리적 측면에서는 아누스와 같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간주하며 유전자 조작 자체를 비판한다. 그러나 유전자에 변형을 일으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화(進化)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유전공학적인 조작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만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복제 양 돌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 기술이 인간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빚어질 위험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

수정란, 생명의 시작

그러면 유전공학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여타의 과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전공학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런데 복제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정란의 세포핵을 체세포의 세포핵으로 대체해야 한다. 즉 수정란 하나를 죽여야만 동물을 복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종교인들은 이런 살생(殺生)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적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견지에서 보면, 이는 다른 과학기술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현재 행해지고 있는 유전공학기술의 경우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불교에서는 전생애에 걸쳐 태도는 중음신(中陰身)인 '간타라'와 '정자'의 '난자'의 삼자(三者)가 화합되는 순간부터 현생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며, 현대의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수정란의 단계를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여 각종 장기(臟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간생명의 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정란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정란이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나, 피부 등과 같은 장기의 일부만을 생산하는 데 쓰이기 위해 적당한 발육 단계에서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정란은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장기(代體臟器)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유전공학기술의 개발에 대해 법적인 규제에 가해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유전공학기술은 다른 과학기술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현재 행해지고 있는 유전공학기술의 경우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불교에서는 전생애에 걸쳐 태도는 중음신(中陰身)인 '간타라'와 '정자'의 '난자'의 삼자(三者)가 화합되는 순간부터 현생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며, 현대의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수정란의 단계를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여 각종 장기(臟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간생명의 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정란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정란이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나, 피부 등과 같은 장기의 일부만을 생산하는 데 쓰이기 위해 적당한 발육 단계에서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정란은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장기(代體臟器)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유전공학기술의 개발에 대해 법적인 규제에 가해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살생 그자체가 악업

과학자는 두 가지 업의 과보를 모두 받게 된다. 과학자는 실험동물의 살생(殺傷)을 통해 좋은 약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또 수정란을 살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배아복제 기술을 개발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과음의 이치에 비추어 볼 때, 과학자는 약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질병을 치료해 준 '선업'에 대한 과보도 받게 되겠지만, 그런 약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저지른 '악업'에 대한 과보 역시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약품과 기술의 개발을 용인하고 장려한 우리들 역시 과학자와 그 과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사회'는 공업(共業)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호킹 '브레인 이론' 인드라망으로 해석 가능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 방한기간중 2차례의 대중강연에서 언급한 '브레인(brane) 이론'이 불교의 화엄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브레인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4차원(시간, 상하, 좌우, 좌우)이 아닌 11차원(10차원+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 많은 이론적 모델 가운데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에 따른 것이다. '초끈이론'이란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들이 사실은 미세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다. '초끈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4차원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나머지 7차원은 아주 작게 접혀 있어 관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정 박사(과학사상 편집장)는 "초끈이론에서 말하는 '입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갱이가 아닌 초속 30만

Km 이상으로 달리는 것들', 즉 우주선(線)이며, 이렇게 볼 때 초끈이론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인드라망'이란 '제석천의 궁전을 장식하는 그물망'을 뜻하는 말로 만물이 모두 상관관계를 갖고 연결돼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또한 '입자'가 매우 짧은 순간적인 상호작용으로 '입자'의 성격을 띠는 것을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속적인 현상으로 보는 화엄의 사사무애(事事無礙)의 세계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세계적 물리학자 프리츠 프 카프라의 이론으로 볼 때 '초끈이론'은 천체물리학의 기본방향이 불교사상에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호킹박사는 애초에 끈을 가지고 시작한 '초끈이론'을 연구하다 보면 2차원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을 가진 다양한 물체들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체들을 통틀어 브레인이라 부르며, 브레인에 관한 연구가 초끈이론에서 얻어낼 수 있는 우주론의 가능성을 한층 넓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종경유음은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명준에게 자진 수양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이자 격려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건망증, 약성비현,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면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精氣와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유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精할
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산삼(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28분 안에 선승과 같은 명상상태 돌입!

— "초월적 경험의 보편화" 신과학 뉴로테크놀로지 명상법 —

“도시 속 포교장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 애용하던 오라진동쿠션에 시달려서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늘 사용한 결과, 지금은 불연증은 사라진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되어 가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로서 또 시스 템의 한 방법으로서 사용해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 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자랐는데 우연히 모 율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 행하면 결과 지금은 5분이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분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진동에 오라진동쿠션과 백색 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보면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 번 에너지제)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게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까지 말끔히 씻어 주었다. 메가 플러스 안내책자는 명상이 무엇인지 체계있는 이론과 기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문 수행인, 직장인,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 게 적용되는 메가플러스 명상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이들에게 공통되는 스트 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본 소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는 수행이면서 당연인 것이다. 메가플러스의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조화를 창조하고 보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다.

<문답명상체교실 총의 협정·(031)742-9859>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치크라, 유체이탈, 창의력파 시 각화 등 20개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계 가능(기초서 이 목적관안정/음선 정적, 보 리액, 순백색광안경)

<미국 메가플러스 제품 Made in USA>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착용되어 이를 체감함으로써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 상, 기공, 치크라, 유체이탈, 무시간상태를 보다 강력하게 증진시킨다

<미국 오라시스템 제품 /중국 OEM>

사용효과

재능전파: 짧은 시간 내에 신체이완과 깊은 휴식으로 생체리듬을 정 상적으로 회복시켜 피로회복, 스트레스해소, 정신안정, 불면증개선, 림 중력 증강의 99% 효과를 보장한다.

명상효과: 알파/세타와 중간지점(여명의 지대)에서 빛의 관념(음성테 크트/원소테)과 소리관념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메가 플러스의 마이클 비드와 앨링, 케이지는 전 차크라의 개방(에테르레 수준), 무시간/진공상태 경험을 보다 쉽게 유도한다.

마인드테크 제품/구입문의 (02)888-2142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